

1. 刻舟求劍(각주구검)

『배에 새기어 칼을 찾음.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융통성이 없이 어리석음.』

[원문]楚人有涉江者，其劍自舟中墜於水，遽刻其舟，曰：“是，吾劍之所從墜。”舟止，從其所刻者，入水求之，舟已行矣，而劍不行，求劍若此，不亦惑乎。以古法爲其國，與此同。時已徙矣，以法不徙，以此爲治，豈不難哉？-『呂氏春秋』

[내용]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칼이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지니 갑자기 그 배에 표시를 하고 말하기를 “이 곳은 내 칼이 따라 떨어진 곳이다.” 하고 배가 멈추자 그가 새긴 곳으로부터 물속으로 들어가 칼을 찾으려고 했다. 배는 이미 지나왔는데 칼은 지나지 않았으니, 칼을 찾는 것이 이와 같다면 또한 미혹되지 아니한가? 옛날의 법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리면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때는 이미 지났으나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呂氏春秋』

(유사) 守柱待兔수주대토 / 미생지신尾生之信 / 膠柱鼓瑟교주고슬 / 墨城之守묵성지수

(속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2. 鷄群一鶴 (= 群鷄一鶴)

원전은 《진서(晉書)》「혜소전(嵇紹傳)」이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다.

죽림(竹林)의 칠현(七賢) 중 한 사람인 혜강(嵇康)의 아들 혜소(嵇紹)는 열 살 때 아버지를 여이고, 어머니를 지키면서 망부(亡父)의 친구인 역시 칠현(七賢)중 한 사람인 산도(山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산도(山濤)가 위(魏)의 무제(武帝)에게 혜소(嵇紹)의 현명하고 효성이 깊은 것을 극구 칭찬하면서 비서랑(秘書郎)으로 임용하도록 추천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난 무제(武帝)는, 「그대가 칭찬하고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비서승(秘書丞)으로 제수해도 괜찮을 것이요. 굳이 비서랑(秘書郎)으로 써야 할 것은 없지 않소.」.

하면서 비서랑(秘書郎)보다 훨씬 고위직인 비서승(秘書丞)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도성(都城)인 낙양(洛陽)에 올라간 혜소(嵇紹)는 상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역시 죽림(竹林)의 칠현(七賢) 중 한 사람인 왕융(王戎)(234~330)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或謂王戎曰(혹위왕융왈) 昨於稠人中(작어조인중) 始見嵇紹(시견혜소) 昂昂然(앙앙연) 如野鶴之在鷄群(여야학지재 계군)」라고 하였다.

「어제 군중 속에서 처음으로 혜소(嵇紹)를 보았습니다. 과연 씩씩한 모습에 기개가 매우 높은 것이 마치 학이 닭무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野鶴之在鷄群이라는 말에서 후일 계군일학(鷄群一鶴)이니 계군고학(鷄群孤鶴), 군계일학(群鷄一鶴), 학립계군(鶴立鷄群) 등의 성어가 생겨났다.

3. 鷄鳴狗盜(계명구도)

『닭의 소리를 내고 개 모양을 하여 도적질하다.』

- ① 잔재주를 자랑함. ② 비굴한 꾀로 남을 속이는 천박한 짓.
- ③ 行世하는 사람이 배워서 는 아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
- ④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하찮은 재주도 언젠가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다.

[원문]孟嘗君使人抵昭王幸姬求解, 幸姬曰: "妾願得君狐白裘." 此時, 孟嘗君有一狐白裘, 直千金, 天下無雙, 入秦獻之昭王, 更無他求. 孟嘗君患之, 遍問客, 莫能對, 最下坐有能爲狗盜者, 曰: "臣能得狐白裘." 乃夜爲狗, 以入秦宮藏中, 取所獻狐白裘, 至以獻秦王幸姬, 幸姬爲言昭王, 昭王釋孟嘗君. 孟嘗君得出, 卽馳去, 更封傳, 變名姓以出關. 夜半至函谷關, 秦昭王後悔出孟嘗君, 求之已去, 卽使人馳傳逐之. 孟嘗君至關, 關法鷄鳴而出客, 孟嘗君恐追至, 客之居下坐者, 有能爲鷄鳴, 而鷄盡鳴, 遂發傳出. 出如食頃, 秦追果至關. 已後孟嘗君出, 乃還. 始, 孟嘗君列此二人於賓客, 賓客盡羞之, 及孟嘗君有秦難, 卒此二人拔之, 自時之後, 客皆服.

--『史記』, '孟嘗君列傳'

(해설)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은 갖가지 재주있는 식객이 많았다. 어느 날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부름을 받아 가서 호백구(狐白裘)를 선물했다. 소왕은 맹상군을 임명하려 했지만 많은 신하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한편 맹상군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알아차리고 소왕의 애첩 총희(寵姬)를 달래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호백구를 요구하였다.

개 흉내로 도둑질에 능한 사람이 '신이 능히 호백구를 얻어 오겠습니다.'하고 이에 밤에 개 흉내를 내어 진나라 궁의 창고로 들어가서 바쳤던 호백구를 취해서 그녀에게 주니 그녀의 간청으로 석방되었다.

그 곳을 빠져 나와 밤중에 함곡관에 이르니 닭이 울어야 객을 내보낸다는 관법으로 객중에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자가 '꼬끼오' 하니 모든 닭이 따라 울어 관문이 열렸고 무사히 통과하여 제나라로 올 수 있었다. 나중에 소왕은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한 것을 뉘우치고 병사들로 하여금 뒤쫓게 했으나 이미 관문을 통과한 뒤였다.

(같은 말) 函谷鷄鳴(함곡계명) : 함곡관의 닭 울음소리라는 뜻.